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엠펙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교육세미나 /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

6월 28-29일 · 교회학교 교사연수의 일환 · 전 교사 참여해야

교회학교 위기가론이 사방에서 들린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줄고 그중 대다수가 성경공부를 싫어한다. 부모님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간다. 무방비한 그들의 마음에 세속 가치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구원의 확신은 사정없이 흔들린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을 다 잃을 것만 같다.

이러한 즈음에 교육연구소는 다양한 마음에서 제1, 2, 3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세미나를 계획하였다. 이 세미나가 벌써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28일과 29일 양일 저녁에 걸쳐 실시되는 금번 세미나는 교회학교 교사와 교재문제,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사 등 교회학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교사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수의 성격으로 진행키로 하여 전 교사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부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회학교 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육세미나의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세미나 일정표

날 짜	시 간	일 정	장 소
6월 28일 (월요일)	18:00 - 18:30	《예 배》 사회: 김동식 목사 기도: 최태원 장로 선교·김동식 목사	본 당
	18:30 - 20:00	주제발표: 박형용 목사 《성경이 내린 신앙교육과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우리나라의 신앙교육》	
	20:20 - 22:00	《본 임 토 의》 《6개 분과별 토의》	
6월 29일 (화요일)	18:30 - 19:20	주제발표: 이승수 목사 《충현교회 신앙교육의 이해와 오늘 사회》: 이인상 장로 기도: 서동식 장로	본 당
	19:30 - 20:30	《본 임 토 의》 《6개 분과별 토의》	
	20:40 - 21:50	《분과별 발표 및 종합토의》 진행 및 사회: 이인상 장로	본 당
	21:50 - 22:10	《총평 및 마무리》 총평: 남상우 장로 마무리: 이인상 장로	

천양대 여름수련회

천양대원들의 성장과 단합을 위해 실시되는 '99 각 천양대별 여름수련회가 6월 27일 만도린천양대를 시작 오후 8월 21일 할렐루야천양대로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총 11개 천양대 및 연주대의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천양대	날 짜	장 소	강 사	주 제
가브리엘	6월 10일-11일	주문진 기독교호텔	주문진 목사	세로로 곧고 평안하라
임마누엘	6월 5일-7일	한국기독교중앙관	김병태 목사	주를 찬송함이 내 일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6월 19일-21일	강원도 대명호텔	조원환 목사	신령한 천양대
아 벨	6월 12일-14일	유한기도원	이종득 목사	호흡이 있는 자이다 찬양하라
시 운	7월 16일-17일	남한강수련원	조원환 목사	빛 가운데 행하라
호산나	7월 8일	충현기도원	조원환 목사	
실로암	7월 18-19일	경기도 일원	조원환 목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벨 열	7월 19일-22일	강원도 대명호텔	김동식 목사	연호는 나의 목자
팬드	6월 6일-7일	홍익동아1교회	조원환 목사	세움의 대가이다
			송재현 신장	
크로마르프	7월 1일	유한기도원	조원환 목사	천양대원의 본분
만도린	6월 27일	유한기도원	조원환 목사	하나님의 충성스런 일꾼이 되자

군전도회 하사관 학교 세례식 · 여름수련회 은혜 중 마쳐

군전도회는 지난 11일 육군 하사관학교 소망군인교회에서 하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가지고 참가한 후보생 76명 중 미세례자인 49명 전원에게 세례를 베푸는 감격을 맛보았다. 한편 14-15일에는 1박 2일 간 군전도회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동해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수련회(강사: 전형준 목사, 조종표 군목)에는 118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회원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새우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오프 군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하였다.

교정전도회

영등포교도소 특별연합전도집회

교정전도회는 6월 21일(월)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교도소 특별연합전도집회를 실시한다. 영등포교도소 강단부 집회는 매주일 낮 12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진행됩니다. 집회는 기쁨 어린 찬양과 성령충만 찬양, 그리고 사랑의 교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년1부의 교사 59명 일동은 총현 40대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편, 다음 주일은 장년1부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제 40대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낙도전도사역

고등부 낙도전도사역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남기독교의 어구교회와 동영의 미늘교회 및 동영남교회 등에서 진행된다. 성도들은 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도와 수고의 말로 진행될 금번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정은희 선교전도사 6월 27일 파송예배



정은희 선교전도사가 6월 27일 찬양예배시 진행되는 파송예배를 통해 케냐로 파송된다. 정은희 선교전도사의 준비와 출국 일정, 현지 정착과 사역 등을 위해 성도들은 관심을 기울여 기도해야 하겠다. 정 선교전도사는 7월 3일 출국 예정이다.

전액장학생 후보자 필기시험 및 면접

도서장학회에서는 충현소식 전액장학생 후보자의 필기시험 및 면접을 아래와같이 실시한다.

일 시: 1999년 6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장 소: 선교관 국제회의실
과 목: 성경, 영어, 논술, 면접

동서울노회 주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동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내일(21일) 목요일(2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교사들은 금번 강습회를 통하여 많은 성장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교회 모든 참여교사들의 등록비는 교회가 지원한다.

봉이촌전도대 교육

일 시: 1999년 7월 4일 오후 3시 30분
장 소: 베다니홀
대 상: 고 · 대 · 청 · 교구 봉이촌 전도대원 전원

충현의 40대 성도들은 이곳으로! 6월 27일은 장년1부 총동원주일

충현의 40대 성도님들! 장년1부로 오십시오.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새로이되는 은총이 가득합니다. 장년1부 집회는 매주일 낮 12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진행됩니다. 집회는 기쁨 어린 찬양과 성령충만 찬양, 그리고 사랑의 교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년1부의 교사 59명 일동은 총현 40대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편, 다음 주일은 장년1부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제 40대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부장 이병욱 장로 -



김성광 목사

하나님의 눈 (사무엘상 16:7)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긋난 감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수회에 걸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찾아 기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찾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인물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물이 바로 엘리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만 있을 때만 사무엘의 눈을 지나가면서 선을 보인 나머지 여섯 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본문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용모와 신장에 있어서 출중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삼상 10:23). 그러나 그의 외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충해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나 신장을 취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우리의 관점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목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뿐 아니라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객관적인 환경에 따라서 평가하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가 하는 정도입니다. 가족사항은 어떠한가, 지적 수준은 어떤가, 외모는 어떤가 등 우리들이 판단기준으로 삼기 위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은 참으로 많습니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특징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아는 것처럼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 이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etz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 17:9).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를 그 현실대로 보옵나니”(렘 17:10). 하나님만이 진정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사울

사울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환경을 살피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자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다윗을 미워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잇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과 가족, 자기 후손의 이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으나 다윗이 차마 손을 대지 못했을 때에도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할 줄 몰랐습니다. 다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고 자기의 아비 집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지 말 것을 자기들 앞에서 맹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

다윗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좇는 삶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자를 자기 손에 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것을 알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이나 부하들의 뜻에 의해 요행하게 않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한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은총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왜곡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오직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끼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요나단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알면서도 거절했고, 요나단은 알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는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뜻을 좇았습니다.

큰 축복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려 함인 하나님의 눈으로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갚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순결하게 지켜지도록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신선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큰 축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충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H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

나님의 신선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에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은혜와 자

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사람의 차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도 놀랍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구했고, 종히 하나님의 경계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명백히 달랐습니니다. 만민에 하나님의 길은 관례라는 측면에서 이 세 사람을 결적인 단계별로 나누어 본다면 맨 아래에 있는 사울이 있을 것이고 맨 위에는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중간쯤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왕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떠돌이 목동이었지만, 이 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니다.

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강한 인위적으로 “맹세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어떠한가?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자인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말했습니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나니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삼상 23:17). 그러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그의 주권에 완전히 의탁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평가가 숨겨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종교와 적대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대항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또 다시 수돗으로 갑니다”

막 태 양(선교전도사)

“에수야 비힐박, 이자 아만다 비에 수?” 이게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몽골어? 파키스탄어? 아니면 스리랑카어? 아닙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가 수단에서 쓰이는 아랍어입니다. “에수남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수남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콩, 개, 사탕수수 등의 곡창지대이며, 석유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국토만 커서 제대로 나일강이 흐르며, 노동 인 구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수단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내전(북부 이슬람 정부군과 남부 기독교 반군 사이의 전쟁)으로 온 나라의 산업 시설이 파괴돼 왔으며, 전체 인구 5% 정도의 사람들이 수단 경제의 9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수단의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종교(이슬람교)를 믿으며, 온 종 일 땀 한 두 개 흘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키와 몸무게가 얼마인지 재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집과 친척과 자기가 속



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추방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는 이슬람 근본 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독교 국가가 주는 원조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단기선교팀이 갔을 때 함께 난민 전도 활동을 했던 현지인 방가루 목사님은 손자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에 단기선교팀이 갔을 때 그 방가루 목사님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름까지도 생생하게 잘 지내던 막내 아들(5세)이 말라리아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말라리아균 이 뇌에 침투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미개한 지역에서 더욱 치명적인 병입니다. 김영태 선교사님은 그동안 말라리아를 두 차례 앓아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봄 김영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한 대학생 이 동료 이슬람대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전도사 한 명은 영양실조로 걸려 선교사님 때에서 요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수단의 복음전도사들은 정말 열심히, 순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우리 교회 젊은 이들이 떠납니다. 김영태 선교사님과 장기이동 선교사님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 이번에도 세 번째 수단단기선교팀이 가는 것입니다. 대학부의 김범진 형제, 국내외국인선교부의 신지현 자매, 선교연구원 아람이 간사 아이다 자매, 그리고 제과 그들입니다. 6월 26일 출발하여 8월 24일 귀국할 예정인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의 건강을 위해,

제3회 이집트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6월 15-18일 현지에서



이집트의 이준교 선교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집트 현지인목회자 세미나가 금요일에도 6월 15일에서 18일까지 열렸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교회 성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집트인 목회자 60여명이 참가하였다.

현지 사역자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현지 사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그리고 그 동안 신명 치료 및 요양자 한국에 귀국해 개설 김영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명안 예배

“천절하자, 항상 웃자, 성령충만함으로 봉사하자”

-10여년간 예배 안내 담당해온 일꾼들-

히나님께선 부오시는 온유이 없는 신성한 예배를 있을 수 없다. 모든 예배의 주도권은 히나님께 있다. 그러나, 히나님은 온비와 미음을 창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비를 두루 감싸주시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는 격을 베푸시니(잠 16:1).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전지자를 기뻐 하시니 비록 아담에게만 임하시지 아니하셨다. 전히 기도해 침묵하고 있는 무리들 위해 임하셨다. 경건적으로 보더라도 온비임을 미음을 그대로 가진 36명의 히나님은 예배와 온비와 미음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시니, 여기서 온비와 미음을 위하여 축복을 받으시는 이들의 성령은 참으로 귀하다. 지난 1987년에 예배안내위원 제도가 생긴 이래 십여년간 온 목회와 안내를 담당해온 일꾼들을 만났다.

인제부터 무슨 동기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까?

“1988년도에 새가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본당 등록실에 있었는데, 새가족 교사들에게 안내위원으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정길 집사) “사실 1987년도까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안내를 담당하셨는데, 이후로는 체계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력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만에 교회에서 안내위원제도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때가 1987년도였는데, 저는 처음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총 12명이었습니까?” (염균형 집사) “저는 교구 전도담당자 겸 헌신시도 1987년도에 1부예배 안내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 집사)

△ 정정길 집사

안희정 집사도 안희정 초기에 비해서, 요즘은 성도들의 예배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지체들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꽤 싫어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거의 자발적으로 잘들 하십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도난 사고 등이 많았는데, 안내위원들이 서로 나서는 많이 없었습니다.” (정정길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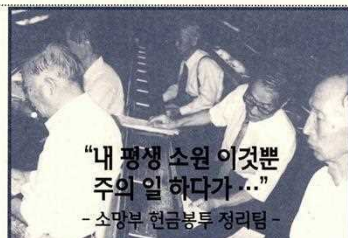
안내위원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개인 신조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절하자입니다. 특히 지체는 안내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얼굴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염균형 집사) “항상 웃자!” (안희정 집사) “믿음 안에서 성령충만한 마음으로 봉사하자.” (정정길 집사)

마지막으로 안내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좋아했지만,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정길 집사) “본인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염균형 집사) “성찬식 등 특별한 날에는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부예배 성찬식의 경우에는 등성등성 할 때가 있으면 배찬에 큰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길러 주셨으면 합니다. 유년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안희정 집사)

안내위원들은 추운 겨울날 성도들이 손을 꼭 잡아 주며 고수하고 믿고, 안내위원의 옷은 모두 배운대로는 안 배운 대로 많을 때도 많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것은 ‘간가’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안내를 잘 할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하면 성도들의 심령을 만났을 때도 수월해집니다. 이득의 한결 같은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소망부 헌금봉투 정리팀-

금요일 오후 1시경 요양실이 흐르는 본당 예배실. 얼핏 보아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두운이 눈에 익숙해져 즈름 작고 느릿한 움직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움직임을 주인공들은 소망부의 정규복 장로, 추산자, 오영진, 유희복, 장지수 집사, 이들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본당에 모여 여기저기 훑어다니는 헌금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다시 채워 넣기도 하며, 헌금봉투 비지함에 간혹 버려진 휴지조각들을 치우는 일을 한다.

이들이 이 일을 하는 데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몸이 건강한 젊은이들도 의와 믿음으로 몸을 굽혀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방학하여 중도에 빠진 멤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이 10여년간 한결같이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90세가 훨씬 넘은 연세임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기가 힘든 노쇠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본당에 모여 주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감사하자. 성도들이 가지런히 꽂힌 헌금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헌금일뿐 생각들이 모두 사라져, 비록 건강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할 일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것은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이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정성과 사랑의 손길이 있음에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리라. (이준희)



△ 염균형 집사



△ 안희정 집사

낙도전도를 앞두고 “이 작은 자를 사용해 주세요”

장 태 은(고등부 1학년)

이 가겠다고 했다. 늦게나마 결정한 탓에 3주 동안이나 늦게 지갑 속에 있던 신청서를 꺼냈다. 왜 이렇게 늦게 냈냐고 선생님께서 구박(?)하셨지만 너무 기뻐서다.

처음에 고등부 주보에 ‘낙도 단기선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신청서가 나왔을 때 나는 감 잡지 못하듯 하지 않았다. 아니 나 같은 애는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지 신청서를 버릴 수가 없어 시 신청서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다닌지 몇 주가 지났다. 이러한 내 마음을 아셨는지 전도부에 계신 선생님이 낙도전도를 얘기하시면서 한 번 가보라고 권면하셨다.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여쭙 보았을 때 엄마도 역시 나처럼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낙도전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사용되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돌아오고 싶어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도와 주셨다. 부모님께서 정말 기쁘게 승락해 주시고 친구들도 갈

은 용기가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주님을 알리지 못하지만, 이번 낙도전도를 통해 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낙도에 가서 오지에 있는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 주님을 알리고 싶다.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부족하고 작은 자이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라는 주님께 참 감사했다. 벌써부터 가슴이 떨려온다. 이번 낙도전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주님과 변화받을 내 모습...

“나를 계획해 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를 사용해 주세요.”

단기선교길 케냐로 떠나며 가장 부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김 순 영(고등부 2학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해외 단기선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해외 단기선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엔 주위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있었고 나 자신 스스로도 공부에 대한 걱정을 비롯하여 많은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

정말 가만 고생이고 힘들고 위험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나 자신은 조금 힘들고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그 노력과 위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고 비록 작지만 그 노력과 위험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믿는 자가 한명이라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다른 근심 걱정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난 뒤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몇 주 후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에서 통과하여 마침내 태어나 처음으로



로 해외 단기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케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결코 내가 남보다 잘나거나 특별하여서 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부족해서 좀더 크신 주님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좋은 기회에 나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제 선교를 위해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력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전하 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알리 그 크신 사랑과 천국문이 항상 그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전하고 싶다. 케냐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교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케냐 선교가 뜻깊고 보람된 활동으로 마칠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소중한 만남 가운데

노 경 화(대학부 5학년)

본당 앞 계단 위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매주 5부예배 후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나 또한 그 그림의 한 부분이 되는 동안 퐁퐁퐁퐁 톨돌에는 어떤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한 만남을 생각한다.

고등부 2학년이 될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씨요.”

“거기 노경화 학생 집이죠?”

“네, 전데요. 누구시죠?”

그렇게 한 통의 전화로 문종회 선생님과 나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만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는 OT를 위한 한 장의 작은 간지를 손에 받게 되었다. 이 종이는 2년 동안 선생님과 나의 긴밀한 대화의 통로가 되었다. 1주일 분의 본문 말씀과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 간지는 그때까지 OT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 매우 신선한 도전이 되었다. 1년 동안 성실한 학생예배 연례에 시상이 있다는 짧은 설명이 눈길을 끌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한다는 것이 나를 가슴 설레게 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는 벅찬 기대와 굳은 결심으로 매일 말씀과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렇게 힘차게 내딛은 나의 이 발걸음이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도 쉬지 않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던 나를 향한 끝없는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기대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 내게 지리로는 실수와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좋은 면들을 먼저 보라고 그러한 것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과 기대 속에서 나는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갔다. 지금도 그대의

자료들을 가끔씩 들춰 보곤 한다. 거기에는 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 꿈과 기쁨, 그리고 고민들과 함께, 어린 제자를 향한 참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선생님의 그 기대와 축복의 기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어느 책의 글귀가 생각났다.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 두근거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문득 선생님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기대를 전하셨고 선생님을 통해 나를 축복하셨던 것이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선생님께 감사하고, 선생님을 통해 나를 축복하셨던 그렇게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더해지는 요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 속에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나를 통해 전하시기를 원한다.



가 족

김 선 중(대학부 5학년)

친구분에게 다니오신 엄

마가 마주앉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얼마 친구분의 친

구분의 이야기인데 놀면서

도 할진 다하던 농협에는 사

업자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동생에게 회사를 물려

주게 되었다던. 동생 또한 착실하고 진

실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교회일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다. 스토리가 뻔한 영화처럼 이 남

자는 ‘교회일’에만 너무 시간을 쓰다가 결국 부모를

내게 되었고 지금은 부부가 지하 단칸방에서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말씀을 마치셨다.

엄마와의 교회 이야기는 대개 이러하다. 대개 교회일

에 빠져드는 것이 싫은 것이다. 낯선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을 뻔 한단에게 하나님님이 어떤 분

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대개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가

족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게 될 때엔 참 이상하고 짜증

이 나곤 한다.

잠시 새벽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히려 나온 건에

생각에 잠겨본다. 부모님은 내가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분들에게 하나님님이 원하시

면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은 경을 칠 소리고 그

런 소리를 하는 나란 세상을 헛 산 녀석이라는 중박이

없는 아무 의미없는 소리일 것이다.

때론 부모님의 기도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다는 자

책감에, 때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지

나나의 종교로만 인식하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 어

느늬족도 소용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져 허우적

כן 한다. 그러나 어찌 한탄 말인가. 부모는 자식의 종교

활동을 크게 간섭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 교

회하 나같은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복게 가운데 나란

그저 하염없이 하늘을 우리를 편이다.

“주여... 당신을 믿으면 너희 대 집이 구원을 얻으리

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구역정성성온전 중강 죄담회 함께 세워져가는 구역 위한 노명감 배워

구역정성온전하고 중강죄담회는 모든 한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범구역정성온전하고 중강죄담회를 만들어냈다.

참석: 박광자(집사, 15교구), 한경화(교과편사, 16교구), 우영희(집사, 17교구)
주최: 정연희 기자

▷ 구역정성 온전케 하신 노명감?



△ 박광자 집사

박광자: 무엇보다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경화: 선별되어 구역장이 된 것이 특혜라 생각됩니다. 옛날에 구역장을 피하러 하였던지라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구역장 안하러는 사람 없게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영희: 교재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내적 치유는 구역장을 하든 말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 온전전과 온전케 하는 노명감?

박광자: 훈련을 통해 배우면서 구역장으로서의 불타는 소명감을 느꼈어요.

한경화: 구역에서는 만사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구역장 훈련교재의 내용을 통합하여 차린 높은 공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희: 전에는 피상적인 믿음으로 구역장에 임했으나 훈련이 끝나고 구역 식구들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배운 것을 적용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한경화 교과편사

▷ 나눔대로의 구역정성 온전?

한경화: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구역으로 이끌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교구(한산)는 교회에서 멀다 보니까 주어진 양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우영희: 봉사자의 특혜를 깨달으며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하는 구역을 만들고 싶어요. 남성구역모임의 정착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광자: 찬송하고 기도하는 구역으로 이끌고 있어요.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고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어요. 이제 그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기가 재미를 붙여 기도열기가 대단하답니다.

▷ 기쁜전성온전 구역정성온전하고 중강죄담회를 위해는?

박광자: 무조건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30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9권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화: 늘 격려해 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구역장을 하지만 뒤에는 든든한 남편의 도움이 있었죠.

우영희: 저는 원래 일에 서툴러서 집안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나 구역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에 빠져 있지 않고 일을 다룹니다. 구역장을 열심히 하다보니 가족들에게 또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되어 존경을 받는 이중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 우영희 집사

▷ 온전전과 온전케 하는 많은?

박광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롬 14:8)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한경화: 누구든지 나와서 일하기를 권하고 싶어요. 구역장으로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영희: 하나님이 주신 구역장의 기회를 통해 성숙된 삶을 살고 싶어요.

▷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제언은?

박광자: 교회에 오면 헌신하는 일에 바쁜 중에 늘 아쉬운 것이 대화입니다. 교회에서 제도로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예배때도 교구와 부서별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중에서도 사람과 나누는 장(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희: 정말 그래요. 마음을 나누는 열린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교구에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신앙생활의 정보를 교환하여 더 나은 삶의 방법도 모색하는 열린 장소가 꼭 필요하답니다.

박광자: 서로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만남을 차단하는 벽을 허물아야 해요. 벽을 허무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노선(1)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만민중앙교회 이세록 목사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이단 문제는 한국 교계에 치해 있는 위급한 현실의 단면이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발생한 모든 공직권한을 비리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은 한국 교회의 사정권 현실의 그림자였다. 이 모든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사가자는 의화한 영광한을 탐취하려는 탐욕의 산물이다. 이러한 즙음에 우리 신앙도들은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노선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김 차 성 장로

장로교 교리의 표준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개혁 교단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여년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사실을 식별하고 혼란시키는 믿음은 지행해 온 것이다.

한국의 신교는 장로교단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동안 한국의 장로교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장로교단은 어떤가? 영인 신학체제인 교도도 없고 신앙노선도 복잡하다. 한국의 이는 장로교단은 "무엇에서 자유주의 신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혼합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신앙 양식에서 볼 때 회개 운동이고 신학사상에서 볼 때 근근주의적 칼빈주의 운동이며 교회 행정상으로 볼 때 생활의 순결을 표방했다. 이것이 일체의 신학사상적 양식에 담겨져서 서서도 명기된 것이다. 그리고 해방의 기회를 하나님

1. Y2K문제?

2. Y2K와 발상가능한 문제들

3. Y2K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Y2K와 그리스도인(2)

1. Y2K문제?

2천년에 컴퓨터 문제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생활의 문제들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들만이라도 미리 알아두고 이에 대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자세를 미리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 발생 가능한 문제만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업체들은 1996년 이후에 출하된 제품에는 Y2K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S4 제품의 경우 1999년 3월분 출시제품 중 20~25%가 Y2K문제 테스트결과 오류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금융보다 더 큰 문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문제입니다. 미국 CNN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 이상이 은행에 모인 돈을 모두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연일이 되면 예금인출 경쟁이 가열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7%가 가정용 발전기나 장전장치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상상이나 전기가 수도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은 짧은 겨울이 때인 1993년 미국 미시시피주 유교 기간인 신유교기는 20%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2천년 문제위원회에 따르면 의회계에서 사용하는 의회기기의 94%가 Y2K문제로 인해 전자계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993년 미국 미시시피주 신비주의의 일부 기술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컴퓨터시계를 2천년 1월 1일로 맞추었다.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고 미국 핵 방위군에 군용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통신호체계는 평일과 공휴일을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Y2K 문제가 걸릴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아철의 경우에는 전력공급과 열차운행제어시스템, 통신분야, 무선통신분야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대체로 해결이 손조로 문제지만, 저가 항공기의 항공분야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외여행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집자 주)



신앙노선이란 중요하다. 신앙노선을 잘못 선택한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되돌아가서 길을 잡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길의 선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잘못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 신앙노선이란 바로 생명의 노선이다.

우리 나라 장로교단의 신앙노선은 대소요리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3년에 신학자 121명과 상당한 실력의 평신도 성경학자 30명 등 151명으로 구성된 기조의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기하여 5년 6개월 22일 동안 걸쳐 회집하고 성안(成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성, 원죄,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건인, 주님의 재림, 지옥의 실재, 내세 천국 등이다. 이 교백서의 교리적 입장은 칼빈의 개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1648년 이래로 모든

이 주셨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또 생활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의 노선은 한민도에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심지어 이렇듯 듣지 못한 어떤 교단은 그 소속 교회들이 하루 아침에 장로교단으로 간판을 바꾼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의 장로교회가 한국 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들은 칼빈주의의 신봉자들이었고 근대한 생활을 표방하는 퓨리탄(청교도)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기 신자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침을 얻을 수 없고 일부 일처주의로 생활이 순결해야 했다. 그래서 속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침을 물어보는데 일부러 하도록 요구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요구받았다. 교회의 행정이 순결을 표방했기에 장로교회는 금연을 요구한 것이다. 교도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옳은 줄 알고 실천해 올랐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현대 문학은 1945년 이후에 크게 분화되어 갔다. 이 시기에 나타난 문학의 분화는 1945년 이전의 문학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